

박사학위 청구논문
지도교수 김 강

국문 논문 제목
한글논문 부제목

2023년 8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김 혁

국문 논문 제목
한글논문 부제목
영문 논문 제목

이 논문을 박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23년 5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김 혁

김 혁의 이학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2023년 6월

건국대학교 대학원

목차

목차	i
표 목차	ii
그림 목차	iii
ABSTRACT	iv
제1장 별해는밤	1
제1절 section	1
1. subsection	1
참고 문헌	3
부록	4
[부록1.]자료	4
서브섹션	4
[부록2.]예제	4
자료	4
국문초록	5

표 목차

〈표 1.1〉 이견위에다가 캡션	2
-----------------------------	---

그림 목차

ABSTRACT

영문 논문 제목

KIM, Hyeok

Department of Physics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In a sunny outdoor ceremony at the Imperial Palace, Trump shook hands with Emperor Naruhito and his wife, engaging warmly as he became the first foreign leader to meet the new monarch. Later he reviewed a cordon of Japanese troops and greeted yellow-hatted schoolchildren waving flags. Those were more buttoned-up occasions than the round of golf, sumo wrestling tournament and hibachi dinner the President enjoyed Sunday. In manners-conscious Japan, Trump's interactions with the monarch and his wife were closely scrutinized. And his talks with Abe will come after a Sunday tweet from Trump threw into question the leaders' alignment on North Korea.

Keyword : hello, namer

제1장 별해는밤

여야 4당, 최대한 기간 단축 시도할듯..한국당 반발로 난항 예상 특위·법사위·본회의 단계별로 고비 전망..본회의서 ‘변심표’ 나올 수도 국회 ‘선거제,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제1절 section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모두 패스트트랙 여정이 절대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 subsection

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처리까지 단계마다 만만찮은 고비가 있다.

한국당이 특위 심사 중 소극적 참여로 논의를 묶어두는 것부터 의결 저지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면 여야 4당의 심사 기간 단축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여야 4당은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을 ‘논의의 시작’으로 삼겠다는 생각이다.

일단 난항 끝에 함께 올린 두 개의 공수처 법안의 접점을 찾는 것이 제1과제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발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발의 법안은 수사 대상과 제한적 기소권 등 큰 틀에서 내용이 비슷하지만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공수처장 임명 방식 등이 달라 조율이 필요하다.

단일한 안을 마련해 본회의 표결에 부치기 위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을 진행하면서도 한국당과 합의해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 역시 이어가겠다는 것이 여야 4당의 입장이다.

정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심사해야겠지만 한국당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그렇게 해야 한다”며 “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하겠지만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 1.1〉 이견위에다가 캡션

안녕하세요

사개특위 소속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금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하느냐, 수정제의를 하느냐, 협상 여지를 보이느냐 등 여러 변수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 과정을 무사히 지나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의원 개개인의 ‘밥그릇’이 걸린 만큼, 패스트트랙을 함께 추진한 여야 4당 의원 중에서도 ‘변심’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패스트트랙 열차가 속도를 내도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만큼, 정계 상황이 그사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처리 절차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이 그 (법안) 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 6개월 이상,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그때도 합의 처리한 4당이 그대로 존속해 있을까? 본회의 부의 무렵에는 정치 지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소속 정당이 달라질 수도 있는’ 의원들이 과거 소속 당에서 한 결정을 번복하는데 무슨 큰 부담을 가지겠느냐”고 분석했다.

총선이 임박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참고 문헌

부록

[부록1.] 자료

서브섹션

서브서브섹션

[부록2.] 예제

a	(1)
b	(2)
c	(3)

[부록3.] 자료

자료

국문초록

국문 논문 제목 영문 논문 제목

가자 똥 치우러2시간전

한일전 승리의 날. 기분 좋다.

답글43댓글 찬성하기1623댓글 비추천하기154 거센-바람2시간전

연합 너 빼딱하게 기사 쓸래 콕..

답글16댓글 찬성하기650댓글 비추천하기23

movieboy2시간전

기레기야 험로를 원하는가

답글2

주제어 : 안녕, 키워드